



외신기자 클럽 초청 토론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5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외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매타버스' 광주·전남 4박5일

5·18 부상자 이광영씨 조문
광주·전남 전역 돌며 민심 청취
29일 광주에서 선대위 출정식
마지막 일정에 영광 찾을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5일 밤 광주를 방문, 전두환씨가 사망한 지난 22일 세상을 떠난 5·18 광주 항쟁 부상자 이광영씨의 장례식장을 찾았다. 이는 5·18 학살에 대한 고백과 반성은 물론 최소한의 사과조차 하지 않은 전두환씨 조문은 가지 않아도 80년 5월 계엄군에 의한 총상을 입어 후유증에 시달리다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이광영씨의 빈소는 꼭 찾겠다는 이 후보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 후보는 대선이 100일 앞으로 다가오는 오는 29일 광주에서 사실상 선대위 출정식을 갖고 호남에서부터 정권재창출의 깃발을 올린다. <관련기사 3면>

25일 이 후보 측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이 후보

역을 돌며 민심을 청취하는 등 바람몰이에 나선다. 이 과정에서 이 후보는 호남에만 불리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을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 정책 제시와 함께 호남의 미래를 열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맞춤형 공약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 후보는 대선을 100일 남겨둔 오는 29일 광주에서 전국민 선대위 회의를 갖는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민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시민 99명과, 온라인을 통해 참여하는 시민 99명 등이 참여한다. 29일에는 선대위 인선도 마무리된다는 점에서 이날 광주에서 사실상 선대위 출정식을 갖는 셈이다. 이는 진보 진영의 심장인 광주에서 정권재창출의 깃발을 들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이 후보가 직접 인선에 나선 선대위에 광주·전남지역 인사들이 얼마나 포함될 것인지도 관심사다.

민중당 관계자는 "오는 28일 20~30대로 구성된 광주 선대위 발대식에 이어 대선이 100일이 남는 29일 광주에서 전국민 선대위 회의가 열리면서 사실상 선대위 출정식 분위기가 고조될 것"이라며 "광주에서 정권재창출의 깃발을 들고 바람을 일으키겠다는 이 후보의 의지가 담겼다"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이 후보는 광주·전남 매타버스(매일타는 민생버스) 마지막 일정에 경선 경쟁자였던 이낙연 전 대표의 고향인 영광을 찾는 것을 포함시켜 두 사람이 이날 전격적으로 만나지 않는다는 관측도 흘러나오고 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 고교생 현장실습 이전 바꾸자 ▶6면
- 복스 - 우리 그림책 이야기·작가의 편지 ▶14·15면
- KIA 리빙딩 아닌 시스템 개편 나선다 ▶18면

사랑과 감사의 67년
민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1]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탄소중립 경제 기지 여수시 묘도가 뜬다

(주)한양, LNG 터미널 조성
'신산업 클러스터' 구축
수소 산업 확대 '에너지 허브'로
가스공사 배관 이용 등 선결 과제

여수 묘도가 우리나라 탄소중립 경제의 핵심기지로 부상할 전망이다. LNG 관련 시설들을 집적해 동북아 최대 LNG 허브로 조성한 뒤 복합에너지, 재생에너지, 미래신소재 관련 시설과 기업들을 유치, 신산업 클러스터로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때문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광양제철, 여수국가산단 등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저감을 위해 수소 중심의 탄소중립 에너지 허브도 조성한다. 이 같은 미래 비전을 위해서는 가스공사의 가스배관 시설 이용 허가, 관련 인프라 확충, 제도 개선 등이 선결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5면>

25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주)한양이 여수시 묘도에 조성 중인 '여수 LNG 터미널'이 지난 9월 LNG 저장탱크(20만 kkg) 3·4호기에 대한 공사 계획 승인을 받아 LNG 저장탱크 총 4기(1단계 사업)에 대한 정부 승인을 완료했다. 여수 LNG 터미널은 기존 LNG 터미널처럼 자가 소비용이 아닌, 국내 최초의 순수 상업용 LNG 터미널이다.

2025년까지 1단계 사업을 마치고 국내 수요를 조기에 확보, LNG 저장탱크 4기를 추가로 건설(2단계 사업)하고 해외 수요까지 확보(3단계 사업)해 총 12기의 LNG 저장탱크를 보유한다면 동북아 최대 LNG 허브 터미널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이를 위해서는 최우선 과제로 LNG 터미널 확장을 위해 (주)한양이 가스공사의 가스배관 시설

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적인 지원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공기기업인 가스공사가 지역 발전, 국가 경제 성장 등을 위해 관련 인프라를 민간기업들이 이용할 수 있게 뒷받침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제도적인 측면에서의 개선과 함께 안정적인 가스공급을 위한 공기기업-관련 기관·민간기업들의 상호 협력, 동반성장, 해외공급사 협력 등의 방안도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주)한양은 이러한 문제들이 해소돼 1단계 사업이 완료되면 LNG 병커링, 트레이딩, LNG 냉열이용 물류창고 및 데이터센터 유치 등 LNG 연관산업과 인프라를 최대한 확충할 계획이다. 또 묘도 준설도 매립장의 부지에 복합에너지물류 및 발전, 재생에너지, 미래신소재산업 등과 관련된 기업을 유치해 신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한다는 계획도 수립중이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광양제철과 여수국가산단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저감하기 위해 수소와 암모니아 중심의 탄소중립 에너지허브도 조성할 계획이다.

오는 12월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전남연구원 등과 '여수 수소 인프라 구축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묘도를 탄소중립 에너지허브로 개발하는 방안 에 대해 지역 내외의 공감대를 형성하는데도 주력하고 있다.

한양 관계자는 "민간 투자활성화를 위해 산업부와 해수부 등 정부부처의 충분한 공감과 도움이 물론, 전남도와 여수시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 덕분에 공사계획 승인 등 인허가를 받고 사업 추진이 순항 중"이라며 "묘도를 LNG 뿐만 아니라 연료전지, 충전소 등 수소 전반이 산업이 집적하는 탄소중립 에너지허브의 전조지기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금리 0.75→1.00% ... 제로금리 시대 마감

지난해 코로나19의 여파로 0%대까지 떨어진 기준금리가 20개월 만에 다시 1%대로 올라섰다. 한국은행이 경기 방어 차원에서 돈을 풀며 1년 8개월 동안 주도한 '초저금리 시대'가 막을 내렸다는 뜻이다. <관련기사 9면>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25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연 0.75%인 기준금리를 1.00%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지난해 3월 16일 금통위는 코로나19 충격으로 경기 침체가 예상되자 기준금리를 한번에 0.5%포인트 낮추는 이른바 '빅컷'(1.25%→0.75%)을 단행했고, 5월 28일 추가 인하(0.75%→0.5%)를 통

해 2개월 만에 0.75%포인트나 금리를 빠르게 내렸다. 이후 기준금리는 작년 7, 8, 10, 11월과 올해 1, 2, 4, 5, 7월 무려 아홉 번의 동결을 거쳐 지난 8월 마침내 15개월 만에 0.25%포인트 인상됐고, 이날 0.25%포인트가 더해졌다.

금통위가 이처럼 3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5%포인트나 올린 것은 그동안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린 부작용으로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우려가 커지는 데다가계대출 증가, 자산 가격 상승 등 '금융 불균형' 현상도 여전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경기 위축, 가계 이자 부담 증대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는 경고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생명의 땅 으뜸진남
Land of Life, Best Jeonnam

전라남도

전라남도 일자리의 모든 것! 일자리통합정보망에 있습니다.

구인구직

일자리 지원

교육 훈련

AI 플랫폼

job.jeonnam.go.kr | 전라남도일자리종합센터 061)287-1142~3